

목포~제주항로 '퀵메리호' 3월6일 취항

씨월드고속훼리(주), 국내 최대·최고·초호화 유럽형 크루즈 매일 오전 9시 연중무휴로 운영...기준비 운항시간 40분 줄어

2003년 이후 14년 연속 제주기점 여객과 화물수송 1위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주)(회장 이혁영)가 고품격 카페리션을 목포~제주항로에 투입

한다. 씨월드고속훼리(주)는 목포~제주 항로에 오는 3월6일부터 씨스타크루즈호를 대체해 '퀵메리호'가 취

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취항식은 전날인 5일 열릴 계획이다. '퀵메리호'는 1만366톤으로 여객 정원 1264명과 차량 490대(승용차



아이들 야외활동 필수품 마이크로킥보드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민도) 8층 마이크로킥보드 매장에서는 부모님과 쇼핑을 나온 어린이가 고객이 킥보드를 시승해 보고 있다. 스위스 안전 킥보드 브랜드인 마이크로킥보드는 특허받은 운전방식인 'LEAN & STEER 메커니즘'으로 몸의 무게중심과 밸런스를 이용한 방향전환 방식을 통해 서핑 또는 스노우보드를 타는 듯한 부드러운 승차감을 자랑한다. 고객이 시승한 디자인은 8세 이상에 적합한 맥시T디자인으로 가격은 21만 9천 원이다.

기준)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국내 최대·최고·초호화 고품격 유럽형 크루즈 카페리션이다.

'퀵메리호'는 매일 오전 9시 연중무휴로 운항되며, 기존 운항선박보다 40분이나 줄어든 운항시간은 제주에서의 여행을 보다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퀵메리호'의 가장 큰 매력은 마치 고급호텔에 온 듯한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고객의 입장에서 배치된 다양한 편의시설이다.

눈 앞에 펼쳐진 탁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디그린테리아, 향긋한 한 잔의 커피와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는 파리아게트 카페, 여행의 활력을 더해 줄 오션뷰탑(생맥주/수입맥주코너)은 고객들의 제주여행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퀵메리호'만의 특별한 영화관, 공연장과 안마실, 오락실, 샤워실, 편의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지난 2011년 국내 연안여객 선사 중 최초로 크루즈형 대형 카페리 선박을 도입, 오전-오후 자정에 편리하게 이용하는 새로운 해상여행의 패러다임을 선보였다.

또 지난 1월31일부터 화물선 '씨월드 마린'이 운항에 들어가 제주 불류 운송체계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한편 씨월드고속훼리는 신규 선박 취항을 기념하는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오는 3월6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씨월드고속훼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3567)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삼성전자가 26일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9' '갤럭시 S9+'를 국내에서 오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 3월 16일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베일 벗은 삼성 '갤 S9' 시리즈 "스마트폰 카메라 한계를 벗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한계를 뛰어넘은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9' 시리즈가 공개됐다.

삼성전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바르셀로나 본주익(Fira Barcelona Montjuic)에서 25일(현지시간) '삼성 갤럭시 연팩 2018'을 개최하고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9'와 '갤럭시 S9+'를 공개했다.

'갤럭시 S9' 시리즈는 말이나 글보다는 사진, 동영상, 이모지 등으로 소통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Visual Communication)' 시대에 최적화된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초당 960개 프레임을 촬영하는 '초고속 카메라(슈퍼 슬로우 모션)', 나를 담은 아바타로 메시지와 감성을 나눌 수 있는 'AR 이모지' 등을 선보이며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 경험을 재창조했다.

'갤럭시 S9' 시리즈는 전용 메모리(DRAM)가 통합된 슈퍼 스피드 듀얼 픽셀 이미지센서를 탑재해 일상에서 눈으로 지나치기 쉬운 순간들도 생생하게 촬영할 수 있다.

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 슈퍼 스피드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를 탑재해 전자 대비 저조도 환경에서의 이미지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업계에서 가장 밝은 F1.5 렌즈와 F2.4 렌즈의 '듀얼 조리개(Dual Aperture)'를 탑재해 사람의 눈과 같이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사용 조건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기술을 카메라와 접목해 새로운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성을 제공한다.

사물을 인식해 보이는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빅스비 비전' 또한 단계 진화했다. 텍스트(번역 및

환율), 쇼핑, 음식, 장소 등 사용자가 원하는 모드를 선택한 후 피사체에 카메라를 갖다 대면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갤럭시 S9+'에는 지난해 갤럭시 노트8을 통해 선보인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다. 듀얼 카메라 모두 광학식 손떨림 보정(OIS) 기능이 적용됐다. 2배 광화 줌을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를 사용하면서도 멀리에 있는 피사체를 뭉개짐 없이 생생하게 촬영할 수 있다.

'갤럭시 S9' 시리즈는 전작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Infinity Display)' 디자인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세계적인 음향 브랜드인 AKG 기술로 완성한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해 더욱 몰입감 있는 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각각 5.8형과 6.2형의 갤럭시 S9·갤럭시 S9+는 엣지 디스플레이에 전작 대비 더욱 상하 베젤을 최소화하고, 상단의 홍채 인식 센서를 숨김으로 시각적인 방해 요소를 더욱 줄였다.

또한 주변 환경에 따라 명암비를 최적으로 조정해주는 기능을 탑재해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도 18.5대 9의 QHD+(2,960x1,440)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밝고 선명한 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더불어 스마트 TV·패밀리허브 냉장고 등 다양한 IoT(사물인터넷) 기기를 손 안에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애플리케이션도 최초로 탑재했다.

'갤럭시 S9' 시리즈는 미드나잇 블랙, 타이타늄 그레이, 코랄 블루, 라일락 퍼플 등 총 4가지 색상으로 3월 16일부터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뉴스스

인터넷뱅킹 대출 하루 9900건...1년새 304% 폭증

지난해 인터넷뱅킹의 대출이용건수와 금액이 하루 평균 1만건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이 쉬워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7년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인터넷뱅킹의 대출신청건수와 금액은 일평균 9900건, 1194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304%, 199.1%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9년말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4월 케이뱅크에 이어 7월 카카오뱅크의 출현으로 인터넷뱅킹 대출 상품이 늘

어난데다, 시중 은행들도 관련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수요가 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체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이용건수와 금액은 각각 9491만 3000건(8.8% 증가), 43조4646억원

전체 인터넷뱅킹등록고객 1억3505만명...전년비 10.2% 증가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건수 9491만3000건·43조4646억원

(2.7% 증가)으로 대출신청 이용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이용건수 기준으로는 조회서비스가 8657만5000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이용금액 기준으로는 자금이체가 43조3452억원

으로 가장 많다.

전체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고객 수는 1억3505만명으로 1년새 1251만명(10.2%) 증가했다. 이중 실제 이용하는 고객수

지도 6584만명으로 전년보다 861만명(15.1%) 늘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이용자가 늘면서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9089만명으로 지난해말보다 1253만명(16.0%) 급

증했다. 이용고객수도 1년 전보다 26.4% 증가한 5894만명이나 됐다.

전체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중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수의 비중도 67.3%로 지난해말보다 3.4%p 증가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뱅킹의 이용실적도 일평균 5857만건으로 전년보다 10.6% 증가했고 이용금액도 3조9630억원으로 26.2%나 늘었다. 특히 모바일뱅킹 건당 이체 금액은 7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원 상승했다.

한편 은행권의 입출금·자금이체 거래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비중은 45.4%로 집계됐다. 조회서비스 이용비중도 인터넷뱅킹이 83.9%로 창구(10.1%)와 CD/ATM(2.9%) 등을 제치고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